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평양시민들과 함께 김일성상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9월 16일 평양시민들과 함께 김일성상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하시였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진행되게 될 5월 1일경기장은 《1912》, 《2012》, 《100》이라는 글발과 전광장치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있었다.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첫 진군길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100년사와 영광찬란한 레일을 집대성한 《아리랑》 공연을 보게 된 관람자들은 감격과 환희로 설레이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석단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순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축포가 터져올랐으며 온 경기장은 선군조선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흥모의 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배경대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천출명장 김정은장군만세!》, 《수령님과 장군님은 주체의 영원한 태양》, 《원수님은 장군님과 함께 오셨습니

다》라는 글발들이 련이어 새겨지고 경기장바닥에는 환희의 꽃물결, 춤바다가 펼쳐졌다.

조선로동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당, 무력기관, 내각, 근로단체 일군들이 주석단관람석에 나왔다.

조선로동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과학, 교육, 문학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로력혁신자들, 평양시내 각계층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 반제민주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와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 무관부

부들, 외국 손님들이 여기에 초대되었다. 《아리랑》의 선율이 장내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공연이 시작되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걸출한 수령을 모시여 파란만장 수년의 민족사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고 그 존엄을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운 주체조선의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무궁번영할 래일을 대서사시적 화폭으로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식민지약소민족의 눈물의 아리랑이 래양민족의 선군아리랑, 강성부흥아리랑으로 승화된 주체조선의 역사를 훌륭히 형상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굳건하며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로 위용떨치는 조선의 정신, 조선의 기상을 다시금 새겨안았다.

아리랑민족의 운명개척과 강성번영의 철리를 확충해주는 화폭들이 련이어 펼쳐지는 속에 선군혁명의 개척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이 배경대에 모셔지자 전체 관람자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열광의 박수를 터쳐올렸다.

전체 관람자들은 절세위인들의 애국위업을 받들어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우리 조국을 세상에서 제일 강대한 나라, 룡성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워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조선로동당의 인민사랑속에 우리 인민이 누리게 될 사회주의부귀영화의 본보기들이 솟아나 천지개벽을 노래하고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 새 세기 산업혁명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가는 내 조국의 자랑스러운 현실을 반영한 《아리랑》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거대한 립체적공간속에 펼쳐지는 아름답고 우아한 물동과 기백있는 체조, 풍만한 민족정적서와 세련된 예술적형상, 천변만화하는 배경대, 화려한 무대장치와 특색있는 조명 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공연은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재능, 주

체예술의 발전모습을 힘있게 보여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또 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울려 퍼지고 평양의 밤하늘에는 황홀하고 장쾌한 축포가 련이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고 공연성공을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반영하여 새맛이 나게 훌륭히 재형상하여 내놓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출연자들과 창작자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고려성군관 새교사 준공식 진행

개성시의 풍치수려한 송악산기슭에 고려성군관 새교사가 훌륭히 일떠섰다.

본교사 옆에 3개의 호동으로 되어있는 교사에는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진 종합

강의실, 교실, 실험실, 강좌실, 문화후생시설 등 교수교양과 과학연구사업, 학생들의 학과학습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있다. 준공식이 19일에 진행되었다.

김영일 개성시당위원회 책임비서가 준공사를 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새 교사를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북남공동선언들에 대한 입장을 바로가져야 한다

최근 남조선에서 여야간의 《대선》경쟁이 세차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북남공동선언들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북과 남의 화합과 대결, 전쟁과 평화를 가르는 기준으로 된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근본핵으로 하고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통일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리념적기초와 근본원칙, 실현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에 의해 오래동안 불신과 대결로 얼어붙었던 북남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되고 대결의 행기만이 감돌던 이 땅에는 통일열기가

감돌아 겨레에게 통일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었다. 민족분열의 장벽에 파열기를 내고 끊어졌던 북과 남사이의 하늘길, 땅길, 바다길이 열리고 정계, 사회계, 학계를 비롯한 북과 남의 광범한 계층들 사이에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들이 진행되었다.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북남매왕과 협력사업들이 활발히 벌어지고 삼천리강도에 자주통일의 열풍이 세차게 굽이친것은 전적으로 북남공동선언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실질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우리 겨레가 번함없이 틀어쥐고 나아가 할 조국통일의 근본 열쇠이며 기치이다.

그러나 애당초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달가와하지 않

은 남조선의 리명박보수패당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북남공동선언들을 그 무슨 《대남전략의 산물》이니 뭐니 하며 험뜯고 극도의 반민족적인 《비핵, 개방, 3000》의 《대북정책》을 고집하면서 북남관계를 대화도 협력도 교류도 없는 최악의 사태에로 몰아갔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공공연히 떠들며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위해 떨쳐나선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단체들과 인사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북남공동선언들을 전면 부정하고 반복대결만을 추구해온 리명박보수패당의 무분별한 대결책동으로 하여 오늘 북남관계는 완전히 파국상태에 처하였다.

더우기 남조선호전파들이 의세와 야합하여 해마다 벌

리고있는 각종 형태의 복잡전쟁연습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다. 하기에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는 전면전쟁, 핵전쟁의 불길을 터뜨리려 광분하는 보수패당의 위험천만한 북침도발책동에 격분하여 회세의 전쟁광신자들을 징벌하기 위한 최후결전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있다.

현실은 북남공동선언들의 성과적리행을 떠나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고있다.

정세가 달라지고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말아야 할것은 북남공동선언들에 대한 립장과 태도이다. 북남공동선언들에

대한 부정은 곧 북과 남의 화합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지 않는것이고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불순한 행동이다.

권력야욕에 집착하여 말로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한다고 민심을 기만하면서 뒤돌아앉아 개꿈을 꾸는자들은 천하의 애국적이며 민족반역자이다.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그를 철저히 리행하는 길로 나아가야 하며 공동선언들의 리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은 겨레의 한결같은 의사이며 지향인 북남공동선언들을 고수리행하는데 민족의 화합과 통일의 길이 있다.

신기복



복 받 은 가 정 들

《야, 창전거리가 참 멋있지요?》, 《저런 희한한 살림집에선 어떤 사람들이 살까요?》...

요즘 배스를 타고, 길을 거닐어도 사람들의 화제에 오르는 것은 창전거리에 대한 이야기이다.

1년전 평양시의 중심부인 만수대지구에 새 거리를 일떠세우다며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새집들이를 하고 행복의 보금자리를 편 오늘까지도 창전거리는 여전히 공화국인민들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주목을 끄는 대상으로 되고 있다.

얼마전 경에 하는 김정원수님께서 창전거리에 새로 입사한 근로자들의 가정을 찾아주신 소식은 또

다시 평양의 웅장한 새 거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원수님께서는 살림집들의 방바닥에 허물없이 앉으시며 늙은이에게는 앉지 말고 건강하여 장수하라는 덕담을 건네기도 하시고 새 집을 찾아갈 때는 성냥을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 풍습이지만 성냥만 들고 올수 없게 가정용품도 마련해 가지고 왔다고 집주인과 아이들에게 생활용품과 세계명작 동화집을 선물로 안겨주기도 하시었다.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찾아주신 집들은 당과 국가의 중요직책에서 일하고있는 간부들의 집이 아니었다. 세 집 다 평범한 교원, 노동자의

집들이였다.

그이께서 찾아주신 집들이 아니다. 창전거리의 살림집들에서는 이들과 똑같은 평범한 지식인들, 노동자들이 살고있다.

창전거리를 돌아본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은 한결같이 의문을 표시하고있다.

- 평양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고급가구까지 그치지 않고 3, 4, 5칸짜리 집들에서 어떻게 노동자들이 살수 있는가?
- 노동자라고 해도 특권층과 인원이 있는 노동자가 아닌가?

하기는 그럴만도 하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야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생활을 상상도 할수 없으니까.

로력영웅으로 내세워주었고 신심살림을 하는 그에게 덩실한 새집을 주었다.

2009년 만수대거리가 한창 일떠서고있을 때 외국어의 한 언론은 거리건설소식을 전하면서 앞으로 이런 경치좋은 곳의 고급아파트들에는 아마 국가의 간부들과 사회의 《엘리트층》들이 살게 될것이라고 제 나름의 예측을 내뉘었다.

그러나 그 예측과는 정반대로 3년전 만수대거리에는 평범한 노동자, 지식인들이 입사하여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창전거리도 마찬가지였다.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근로자들이 이곳에서 살고있다.

수도의 변화가라고 말할수 있는 만수대거리나 창전거리 등에 대한 외국인론의 추측대로라면 공화국에서의 특권층은 곧 평범한 사람들인셈이다.

창전거리에 보금자리를 편 그들은 우리나라는 노동계급의 세상이고 평백성이 복락을 누리는 인민의 나라라고 격정을 터치고있다.

그러니 공화국에서 특권을 받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평범한 근로자들인 것이다.

이런 나라가 세상 또 어디에 있을까.



창전거리 종로동 1번 1현관 3층 2호 박승일가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4돐에 즈음하여 중국 상해시, 로씨야 울라지보스크시에 우리 나라 도서, 사진, 수공예품전람회가 8일부터 13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경도자 김정일장군님, 경에 하는 김정원수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

우리 나라 도서, 사진, 수공예품전람회

중국, 로씨야에서 진행

이 전람회장들에 모셔져있었다.

또한 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우리 공화국이 길어온 영광찬란한 역사를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수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전람회개막식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중국 상해중화서화협회 리사장은 중추조선은 두 나라 인민들이 한진호에서 서로 어깨걸고 싸우며 맺은 친선이라고 언급하고 이번 전람회를 통하여 중국인민은 조선의 문화예술에 대하여 잘 알게 될것이라고 강조하

공화국 동북지역을 방문하신 1돐과 선군혁명명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2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4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도서, 사진, 수공예품전람회개막식이 8월 31일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지에서 진행되었다.

본사기자 김춘경

후대교육사업에 모든것을 바쳐나가겠다

평양창진소학교 교장 김수복과 나는 대담

기자: 나라가 해방된 첫날부터 후대교육양문제를 민족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던 대원수님들에 대한 그리움이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간다.

한생을 교육사업에 바쳐오면서 대원수님들의 후대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해온 교장선생의 심정은 남다르리라고 본다.

김수복: 그렇다. 나는 단발머리치니서부터 오늘에 이르는 근 60년세월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배우고 느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아이들을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며 어린이들을 새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기 위해 온갖 사랑을 다 돌려주시었다.

수령님께서 전후 나라가 그처럼 어려웠던 시기 제일먼저 학교를 복구하도록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배움의 노래를 마음껏 펼치도록 해주셨다. 그 사랑속에 우리 학교도 포연을 가지고 번듯하게 자기의 새 모습을 드러냈으며 해빛같은 교정에서는 학생들의 배움의 글소리가 랑랑히 울려 퍼지게 되었다.

우리 학교가 복구된지 1년도 되나마한 주제 43(1954)년 9월 22일 몸소 우리 학교에 찾아오신 수령님께서 학생들을 공부하는 모습도 보아주시고 학생들의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치여 교원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었다.

전반적11년제의 무교육이 실시되는 뜻깊은 날에도 몸소 우리 학교를 찾아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 교원들과 학생들을 축복해주시고 교원들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었다.

이날 수령님께서는 것 입학년 1학년 남학생들의 학급부터 시작하여 모든 교실들을 빠짐없이 다 돌아보신 다음 우리 교원들과 학생들을 만나주시고 전반적11년제의 무교육을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우리 어린이들을 미래의 당당한 주인공들로 키우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믿음어린 가르치심을 가슴에 새기고 학교의 모든 교원들은 학생들을 쓸모있는 인재로 키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왔다.

기자: 교장 선생은 절세위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온 교육자들중의 한사람으로서 하고싶은 이야기가 많으리라고 본다.

김수복: 내가 교단에 선 때는 18살 꽃나이치니서절이었다. 교단에 선지 한달밖에 안되었던 때에 나는 우리 학교에 찾아오신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그날 나를 단발머리선생님이라고 정경게 불리주시며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처음에는 좀 힘들수 있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모범교원이 될수 있다고 고무해주시던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오늘도 잊을수 없다.

어버이수령님의 그날의 사랑과 믿음, 가르치심대로 학생을 후대교육사업에 바칠것을 결심하고 나는 학생들을 최우등생, 모범학생들로 키우기 위해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높이는 한편 학생교육양문제를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 교원으로서의 체모를 조금이나마 갖추게 되었고 내가 맡은 학생들을 모두 최우등생으로 키워낼수 있게 되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내가 거둔 자그마한 성과를 크게 평가해주시며 나의 교수방법을 온 나라에 일반화하도록 하시고 자신의 존함으로 된 표창장도 안겨주시었고 국가적인 큰 대회들에 대표로까지 불려주시었다.

1961년 4월 전국교육인군열성자대회때에는 나에게 공화국국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칭호도 안겨주시었다. 그때 나의 나이는 25살밖에 안되었다. 한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나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교장이 되었을 때에는 교장이 별다른 사람이 되는것이 아니라 하고싶은 일을 할 책임이 있다고 하시며 한계 학교를 맡아주시고 나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으며 주제 64(1975)년 학교에 또다시 찾아오시여 우리 교원들을 한몸에 안고 사랑의 기쁨사진까지 찍어주시었다.

내가 받아안은 사랑과 은정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에 영웅의 금별달도 또다시 달아주시었다.

정진직후 단발머리치너로 교단에 나섰던 내가 한계 학교를 책임진 교장, 2중로력영웅으로, 인민교원으로 여섯가지 성장할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기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관을 그대로 이어받은 선생은 어떻게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이 이 학교에도 미치지 않았는가.

김수복: 정말 꿈만 같다. 지난 5월말 몸소 우리 학교를 찾아주신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내가 지난 58년간은 이 학교의 교원, 교장으로 사업하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에 한생을 바쳐가고있는데 대해 과분한 평가를 주시었다. 그러시고는 곧 학교문을 열고 공부부 시작하게 된다는 보고를 들으시고 그때 다시 오셨다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꼭 보시겠다고 사랑의 약속을 해주시었다.

정정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역사를 길이 빛내여가시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 땅의 새 세대들은 미래의 주인공들로 믿음직하게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내 나이 비록 일흔이 훨씬 넘었지만 절세위인들의 가르침을 언제나 가슴속에 좌우명으로 새겨놓고 후대교육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친으로써 갈수록 더해만 가는 이 위대한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해나가겠다.

기자: 오늘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 앞으로 절세위인들의 사랑을 길이 전하며 후대교육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평양창진소학교 교장 김수복

경에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창건 20돐 경축연회를 비롯한 여러 계기마다 모든 학생들을 최우등생, 모범학생들로 키운 로력영웅, 후대교육사업에 공로가 있는 동무라고 나를 거듭가reet 내세워주시었다. 그리고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이 새겨진 시계표창도 안겨주시고 내가 60살을 맞는 날에는 몸소 사랑의 생일상도 차려주시였으며 이 가슴

황해남도 강령군에서 제배되는 차나무잎으로 만든 조선의 명차 온정차에 대한 국내외의 인기가 올라가고있다. 온정차의 본이름은 강령특차와 강령홍차

이다. 온정차에 대하여 소개한다.

차나무의 약효에 대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있다. 수천년전부터 인간생활과 떼를 떼지 않는 인연을 맺고있는 차는 동맥경화, 고혈압, 뇌혈전증을 막고 심장기능을 높여주며 장을 보호하고 방사선피해를 줄이고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하여 세계4대장수식품의 하나로 되고있다.

차는 그 신비한 효능으로 하여 예로부터 《불로장수의 명약》으로 불리우며 금으로까지 교환되었다고 한다. 하여 령사에는 차와 관련한 일화들이 무수히 전해지고있다.

차를 끓이기 위한 도구인 찻고와르는 오늘날에도 로씨야를 상징하는 생활용품으로 되고있다. 차때문에 전쟁까지도 일어났다. 중국의 아편전쟁은 사실 차와 비단때문에 벌어진 전쟁이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에서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도 차때문이었다고 말할수 있다. 우리 나라 령사에서 《임진왜란》이라고 불리우는 임진조국전쟁을 가리켜 일본에서 일명 《라치전》, 《도자기전쟁》이라고 부르고있는것도 다름아닌 차 그릇때문이었다.

오늘날 커피, 코코아와 함께 인간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세계3대기호음료의 하나로 간주되고있는 차는 북위 36°선이북지역에서는 재배할수 없는것으로 공인되어있어 그 진귀함이 더해지고있다.

그런데 공화국에서는 차나무를 북위 37°~38°선상에서 완전히 풍토순화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과학계를 놀래운 것이다. 온대, 아열대지방에서 자생하는 남방산식물인 차나무는 겨울나기기온이 최고 -15℃~-16℃이다.

세계적으로 차의 주요생산지를 보면 중국, 일본, 인디아, श्री랑카, 인도네시아 등의 기후가 온화한 지역들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남조선의 지리산일대에서 차나무가 재배되고있다.

허나 강령지역은 겨울에 -20℃이하로 내려갈 때가 드물다. 말하자면 차재배

서해기슭에 아득히 펼쳐진 차나무숲

지역가운데서 제일 추운 지대에 차나무가 뿌리를 내린 셈이다.

이곳에서 차나무가 재배되기 시작한 때로부터 30년 세월이 흘렀다. 옮겨심으면 죽는다는 재목이 힘든 차나무를 추위견디성이 강한 품종으로 풍토순화시킨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이곳에서 치너시절

부터 10여년동안 일해온 송춘선선생은 말하였다.

강령차의 품계가 없는 비옥한 토양에서 유기질비료로 자라는 차나무의 잎으로 만들었으므로 그 맛과 약효가 다른 나라의 특차보다 우월하다. 차의 원산지이며 차문화가 제일 오래다는 중국사람들도 강령특차의 맛을 보고는 엄지손가락을 내흔든다.

내 기뻐하시던 수령님의 지극한 보살핌에 의해 사랑과 생장성이 좋은뿐 아니라 정교당 수출량이 훨씬 많은 새 품종들이 개발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령님의 유언을 지켜 나라가 고난을 겪던 날에도 차나무재배와 관련한 연구사업을 더욱 활성화해나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차나무재배가 성공하였을 때에는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수령님의 인민적사랑이 길이 전해지도록 친히 《은정차》도 명명해주시었다. 하루빨리 인민들이 차를 마시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강령땅에 차를 전문재배하는 농장인 온정차재배원을 내오고 발전적용을 더욱 확장하도록 하시였으며 평양시에는 온정차를 봉사하는 시설도 내도록 하신것 등 그이의 애민현신의 로고는 끝이 없다.

사회과학원 령사연구소 소장인 교수, 박사 조희승은 우리 나라에서 차재배역사는 수천년을 헤아리지만 차나무에 이렇듯 인민사랑의 전설이 깃들기는 처음이라고 말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새나라시기에 재배되기 시작한 차는 지난 시기에는 중중의식과 외

교상의 중요한 재료의 하나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평백성들은 마시기 어려웠다. 량반통치배들은 차나무를 재배하는 사람들도조차도 차맛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강고리 수탈해갔다고 한다.

이에 대해 고려시기의 시인이었던 리규보는 자기의 시에서 일천가지 차잎으로 만든 한모금의 차물은 만백성의 기쁨과 살이라고 개탄하면서 그대가 만일 벼슬자리에 오른다면 산에 들에 차나무 모조리 불태워 지방의 백성들이 차잎을 따서 어깨로 저날라 세금을 바치는 반인민적인 제도를 없애버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다.

오늘 공화국인민들은 절세위인들을 모시여 누구나 할것없이 온정차를 즐겨마시며 문명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있다. 하기에 강령은 온정차재배원을 돌아본 외국인의 한 인사는 이민위천의 원대 한 뜻이 꽃핀 빛나는 현실에 감동되어 《은정은 대를 이어 전해지리라》라는 뜻깊은 글을 남기었다.

공화국인민들은 눈썹이 아득히 펼쳐진 차나무숲을 보면서, 온정차를 마시면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이민위천의 세계를 가슴뜨겁게 받아안고있으며 인민사랑의 감동깊은 전설을 대를 이어 전해가고있다.

본사기자 박금일

제일 추운 곳에서

강령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먼저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을 떠올린다. 그도 그럴것이 강령반도알바다에서 여러차례의 서해해전이 일어났기때문이다. 몇해전에 있는 연평도포격사건도 바로 강령반도 교앞에서 일어났다. 당시 이곳 주민들은 불바다에 잠긴 연평도를

물에서 육안으로 직접 목격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연평도가 바라보이는 강령군 동암지구에 유명한 차나무밭이 있다는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못하다. 바다를 면하고 굽이굽이 흘러간 맛있는 야산들에는 100정보에 달하는 차나무밭이 다락밭형식으로 보기 좋게 전개되어있다.

하여 령사에는 차와 관련한 일화들이 무수히 전해지고있다.

차를 끓이기 위한 도구인 찻고와르는 오늘날에도 로씨야를 상징하는 생활용품으로 되고있다. 차때문에 전쟁까지도 일어났다. 중국의 아편전쟁은 사실 차와 비단때문에 벌어진 전쟁이었다고 해

다. 온정차에 대하여 소개한다.

차나무의 약효에 대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있다. 수천년전부터 인간생활과 떼를 떼지 않는 인연을 맺고있는 차는 동맥경화, 고혈압, 뇌혈전증을 막고 심장기능을 높여주며 장을 보호하고 방사선피해를 줄이고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하여 세계4대장수식품의 하나로 되고있다.

차는 그 신비한 효능으로 하여 예로부터 《불로장수의 명약》으로 불리우며 금으로까지 교환되었다고 한다. 하여 령사에는 차와 관련한 일화들이 무수히 전해지고있다.

차를 끓이기 위한 도구인 찻고와르는 오늘날에도 로씨야를 상징하는 생활용품으로 되고있다. 차때문에 전쟁까지도 일어났다. 중국의 아편전쟁은 사실 차와 비단때문에 벌어진 전쟁이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에서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도 차때문이었다고 말할수 있다. 우리 나라 령사에서 《임진왜란》이라고 불리우는 임진조국전쟁을 가리켜 일본에서 일명 《라치전》, 《도자기전쟁》이라고 부르고있는것도 다름아닌 차 그릇때문이었다.

오늘날 커피, 코코아와 함께 인간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세계3대기호음료의 하나로 간주되고있는 차는 북위 36°선이북지역에서는 재배할수 없는것으로 공인되어있어 그 진귀함이 더해지고있다.

그런데 공화국에서는 차나무를 북위 37°~38°선상에서 완전히 풍토순화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과학계를 놀래운 것이다. 온대, 아열대지방에서 자생하는 남방산식물인 차나무는 겨울나기기온이 최고 -15℃~-16℃이다.

세계적으로 차의 주요생산지를 보면 중국, 일본, 인디아, श्री랑카, 인도네시아 등의 기후가 온화한 지역들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남조선의 지리산일대에서 차나무가 재배되고있다.

허나 강령지역은 겨울에 -20℃이하로 내려갈 때가 드물다. 말하자면 차재배



